The LEET BIBLE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TLB

FINAL ROUND 2025

2025학년도 기출문제 철저분석 **언어이해**

Urban Culture Lab

The LEET BIBLE™

FINAL ROUND

제목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5 언어이해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쳐랩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9 대우도씨에빛2 1동 1514호 (서초동)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39,800원
ISBN	979-11-988899-1-1(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의 **집필 방향**

The LEET BIBLE 초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귀중한 의견과 제안들은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덕분에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명 방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

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Final Round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이제 Final Round를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LEET 준비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LEET 준비를 시작하신 분들이 본 교재를 보신다면, 최신 기출문제를 바로 다루어보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음은 잘 이해하지만, Principle 등 더 앞단으로 돌아가셔서 LEET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향을 학습하신 뒤 본 교재를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다른 변수들이 추가됩니다. 실제 시험 시간의 제한이라는 변수, 낯선 환경에서 높은 긴장감과 제약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변수,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변수 등이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변수 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끔 **각 문제를 푸는 우선순위, 접근방법 등 전체적인 시험운영 전략에 대한 부분 또한 제대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단순히 문제의 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LEET문제를 접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즉, 실전 연습으로 Full Set로 문제를 풀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배우면서 "시험장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실행하는 것" 단계를 연습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문제 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부터 각 문제를 학습 이후 혼자 정리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등까지 폭넓게 커버합니다.

마치 LEET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학습하시어, 앞선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 훈련했던 LEET의 기초를 마음껏 발휘해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여러분만의 LEET 접근법을 다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LEET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LEET 신수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EET 성적은 신이 내린다는 자조적인 표현이지만, **이는 수험생의 도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통념**입니다. The LEET BIBLE은 이러한 막연한 속설을 넘어, 수험생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해 드렸던 방법론을 본 교재에서 다루는 최신 기출문제에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LEET 점수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다른 교재에서도 강조드렸듯 LEET는 지식형 시험이 아닌 적성형 시험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만약 본 교재로 최신 기출문제 풀 세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특정 유형, 특정 제시문에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가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지점을 앞선 교재로 돌아가 보충하시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값진 도전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향한 여정에 본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SAMPLE SAMPLE SAMPLE SAMPLE

시작하기에 앞서

The LEET BIBLE Final Round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 Final Round 교재는 커리큘럼의 가장 마지막 교재로, 한 해의 전체 기출문제를 리트바이블 방식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방법들을 토대로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순히 원리나 접근방식을 넘어서 시험장에서 행해야 하는 실전적 대응 방법도 같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야 하는 점은, 기출문제를 완전히 학습하고 제시문과 문제풀이를 다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아닌, 극도의 긴장감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훈련을 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Final Round 교재에서는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Tip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1 FINAL 행동강령

FINAL 행동강령

앞서 The LEET BIBLE의 LEET Tips와 유사한 형태이나, Final Round에서 드리는 팁은 "행동강령", 즉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를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앞선 리트바이블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계속해서 훈련해 오셨다면, FINAL 행동강령에서 의미하시는 바가 더 확실히 와닿을 것입니다.

2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사후적 분석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첫 번째 제시문을 읽을 때는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오히려 이를 대비하여 연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파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사실일치 문제의 선지를 최대한 읽어...

LEET 실전 전략 / 사후적 분석

1번 문제는 전형적인 대응형 문제로서 남들보다는 시간을 줄이면서 풀며 동시에 맞혔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2분 30초 내지 2분에서 풀어 시간을 1분 정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험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6분 걸리신 분이 많았습니다.

Final Round에서만 보실 수 있는 LEET 실전 전략 코너로, 사전적 분석과 사후적 분석 두 파트로 나뉩니다. 사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사고방식이나 전략에 대해 논하고, 사후적 분석은 해당 문제를 다 마친 다음에서의 총론 및 추가적인 코멘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접근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과목이나 문제에 따라 없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Test-taking Strategy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특히 시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해 드립니다. 각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이 아닌 더 큰 차원에서 LEET 시험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크로 솔루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 Final Round 사용설명서 9

1. Final Round 집필 의도 11
2. 시험장에서의 실전 행동방식 13

CHAPTER 02 | 2025 언어이해 총평 17

CHAPTER 03 | 2025 언어이해 문제풀이 (상) 32

1. 1~3번 제시문: 범죄서설(뉴게이트)과 문학이 법 개혁에 미친 영향 34
2. 4~6번 제시문: 흡혈귀 전설과 포르피린증의 관계 52
3. 7~9번 제시문: 서양 고대사에서의 소년애에 관한 연구 69
4. **1~9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86
5. 10~12번 제시문: 사법심사와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네 가지 모델 90
6. 13~15번 제시문: 공리주의와 권리의 양립 가능성 107
7. 16~18번 제시문: 솔로우 성장모형의 기본 개념과 주요 변수들의 관계 123
8. **10~18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140

CHAPTER 04 | 2025 언어이해 문제풀이 (하) 142

1. 19~21번 제시문: 보조생식술 발전에 따른 독일/한국의 배아 처리 문제 144
2. 22~24번 제시문: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크리톤』 160
3. 28~30번 제시문: 희곡과 공연의 관계 179
4. **19~30번 시험장 실전 운영 전략 (22~24번 제외)** 195
5. 25~27번 제시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SQL 개념의 소개 196

정답지 214

SAMPLE

CHAPTER

01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

드디어 Final Round.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고닦았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차례입니다.

제 1 장

Final Round 사용설명서

The LEET BIBLE

1 Final Round의 집필 의도

그동안 The LEET BIBLE 시리즈를 통해 쌓아온 LEET 학습의 노하우와 전략을 집대성하여, 수험생 여러분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이드로서의 새로운 해설서를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The LEET BIBLE 시리즈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Final Round는 사실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LEET 학습에 필요한 모든 사고과정을 담고자 하려는 시도입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 2025에는 2025학년도 최신 기출문제 중 언어이해 30문제와 추리논증 40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및 접근법을 담았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어떻게 실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수험생 입장에서의 접근입니다. 기존의 The LEET BIBLE의 모든 시리즈도 그러하였으나, 더욱이 이 책은 실전적 접근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정답이 왜 도출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핵심 원리와 기술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 LEET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보다, 지금의 로스쿨 입시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높아진 난이도를 바탕으로 한 경향을 짚어보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제시문을 완벽하게 독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독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넘어가되, 전체적인 흐름은 놓치지 않도록 독해 과정을 조절할 것을 Principle(상), (하)를 통하여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제시문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문제풀이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시문 독해 과정에서는 목차 설정과 중요 문장 표시에 주력할 것을 권했습니다. 수년간의 기출 분석을 통해 빈출 선지로 등장하는 유형의 문장이나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문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를 토대로 독해에 임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문제 풀이 시에는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해`둔 행동 강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LEET 시험을 준비했고, 특히 언어이해 영역에서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출 분석과 모의고사를 통해 출제 경향을 꿰뚫어 보는 한편, 본 시험에서는 평소 세워 두었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침착하게 문제에 접근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저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The LEET BIBLE Final Round는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 없이 LEET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학습 전략을 통해 실전에서의 대응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소 험난해 보이는 LEET 정복의 여정에 이 책이 좋은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책과 함께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실력이 눈부시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02

2025 언어이해 총평



The LEET BIBLE™

“

2025학년도 언어이해는
최근 2년간 변경된 언어이해 양상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명시적 이항관계의 추출,
재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는 등,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 2 장

2025 언어이해 총평

The LEET BIBLE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 영역에 대한 총평을 이야기하고, 실전적인 풀이 팁과 접근 전략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전체 난이도 및 경향 분석

전체 난이도 및 경향 분석 이번 시험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제시문의 전형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내용의 복잡함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시문이 명시적으로 개념 간 관계나 문단 간 구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수험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차원의 구획을 실행해야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 간의 관계를 단순히 찾아내는 것을 넘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간 경계, 유사 개념 간 포인트를 첫 독해에서 설정하고 재독해를 통한 실행 능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2025학년도 문제에서는 단순 대응형 문제조차 재독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구성이 많았습니다. 선지를 보자마자 명확한 대응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단과 문단, 개념과 개념 사이를 넘나들며 정보의 위치와 의미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해당 대응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 [1-3] 범죄서설(뉴게이트 소설)과 문학이 법 개혁에 미친 영향

제시문의 내용 및 구성

- 문학과 법의 관계 설정 (상호작용적 관계)
- 뉴게이트 소설의 등장과 특징
- 다양한 작가들의 접근 비교 (불워-리턴, 에인즈워스, 새커리, 디킨스)

문항 분석

- 1번: 형법 개혁 운동과 범죄소설의 관계 설정 및 차원의 구획 사실일치 대응형 문제(평이)
  - 명확한 대응 지점을 찾는 문제로, 1문단에서 "당대의 지배적 범죄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선전·유포"했다는 내용이 있음
  - 뉴게이트 소설은 기존 담론을 강화한 차원이 아니라, 대항하는 차원이었음
- 2번: 지문 내 용어들(㉠~㉤)의 차원의 구획(평이)
  - 상위 차원의 전제(문학과 법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 용어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해야 함
  - 전형적인 차원의 구획 문제로 정보를 배치하는 선지
  - ㉡이 "계급적 위치에 순응"이 아닌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원 간의 관계로 정보를 끌고 갔으면 답은 명확
- 3번: 작가들 간의 관계와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 문제
  - 새커리와 다른 작가들 간의 차원 구획("앞선 작가들과 달리")을 명확히 이해해야 함
  - 독자와의 심정적 거리(좁힘 vs 넓힘)라는 관점에서 작가들의 접근 방식을 연결하는 문제

난이도 및 평가

- 사상가들의 견해 차이를 변별해가며 읽어야 하기에 정보습득 차원에서는 어려울 수 있었음
- 그러나, 정보처리과정에서는 단순 대응 및 차원의 구획을 통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었음
-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재독해는 단순한 경우가 많음. 개념 이해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간 관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됨
- 정보습득과정 : 상 / 정보처리과정 : 중하

CHAPTER

03

2025 언어이해 문제풀이 (상)



The LEET BIBLE™

“

2025학년도 언어이해 문제는
‘실전 대응력’의 진화를 요구한
시험이었습니다.

리트바이블의 핵심 원리,
특히 차원의 구획과 전략적 선택으로
평균을 넘어서는
실전 정보습득방식과 처리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학이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을 반영한다는 명제는 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문학적 서사는 한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문학 속의 법은 비윤리나 무질서와 대비되는 규범·규율의 상징, 또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 같은 대상으로 그려진다. 문학의 감성적 호소력은 독자를 일정한 행위 방향으로 이끌어 법의 제·개정을 추동하기도 한다. 1830년대 영국에서 유행한 범죄소설은 이러한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준다. 범죄자 처형기록부인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인물과 소재를 차용해 '뉴게이트 소설'이라 불린 이 시기 범죄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당대의 지배적 범죄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선전·유포하여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불워-리턴의 『폴 클리퍼드』는 뉴게이트 소설 열풍의 서막을 연 작품이다. 그 서두에서 작가는 소설 집필의 동기가 영국 형법의 두 가지 근본적 야만성, 즉 수감자를 교화하기보단 타락하게 만드는 행형, 그리고 단순 절도범마저 공동체로 복귀할 기회를 박탈하는 ㉠ 피에 굶주린 형법전에 대한 교정임을 밝혔다. 범죄자가 들끓는 술집에서 유년기를 보낸 클리퍼드는 소매치기 누명으로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거듭한다. 법정에 선 그는 죄 없는 소년으로 감옥에 갔던 자신이 법을 깨뜨릴 준비가 된 남자로 그곳을 나왔다며, "당신들의 법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더니 이젠 죽이려 든다."라는 항변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발한다. 법은 범죄자를 만드는 계급과 처벌하는 계급만을 위해 존재할진대,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놓인 빈민을 ㉡ 자연의 제일법칙에 입각한 선택지만 남은 상황으로 내몬 다음 그 선택지를 집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지 소설은 질문한다.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자를 신비화하고, '참회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 또는 '추궁당하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역할을 전도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불워-리턴의 후속작 『유진 아람』엔 주인공의 범행 사실을 밝혀낸 자가 도리어 공동체의 지탄을 받고 주인공의 용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에인즈워스의 『룩우드』 또한 영웅의 일대기처럼 범죄 서사를 구성하고 노상강도의 삶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 묘사나 형법 개혁의 메시지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던 지배계급은 이런 전복적 설정에 대해서는 ㉢ 교수대에 낭비된 감수성이라 격렬히 비난했다. 소설이 연극으로 만들어져 중산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 수용층이 넓어지자 불온한 열광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었다.

작가는 ㉣ 문학적 공범자가 되어선 안 되며 무뢰한의 타락상을 정확히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한 새커리는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한 여성 범죄자를 발굴하여 『캐서린』을 집필했다.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개인사를 부여한 지점까지 이 소설은 뉴게이트 소설의 통상적인 문법을 따랐다. 하지만 범죄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고자 인물의 유년기를 조명했던

앞선 작가들과 달리, 새커리는 범죄성이 개인의 병증이나 타고난 악함에 의한 것임을 밝혀 독자의 공감을 차단하려 했다. 주인공의 처형 장면은 기사 인용 형태로 건조하게 기술되었다. 처벌은 악인의 참회와 독자의 눈물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은 채 가해짐으로써 ㉣ 봉쇄된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독자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읽히기 마련이다. 수전노로 악명 높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고자 살인을 조력한 주인공의 욕망은 독자에게 뜻밖의 호소력이 있었다. 범죄에 대한 구토를 유발하고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킬 약물을 투입하겠다는 작가의 기획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역시 범죄소설의 자장 안에서 읽힌다. 범죄자의 삶을 세밀히 묘사하는 작법은 여기서도 사용되었으며, 익살스럽고 입체적인 악역들은 오락적 요소를 배가했다. 악인 대신 어린 올리버가 주인공으로 설정됐으며, 그 주변 인물인 소매치기들은 자기 삶을 '로맨스와 열정이 가득한 유쾌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 그 삶이 교수대에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반면 올리버는 구빈원에서 단지 죽을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혔음에도 탁월한 통제력으로 범죄 유혹을 물리쳤고 마침내 사회로부터 보상받는다. 뉴게이트 소설의 시대가 저문 후에도 이 소설이 꾸준히 읽힌 데엔 법의 부정의를 고발하되 해학과 권선징악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어 법질서 자체를 교란하지는 않았던 작가적 선택이 한몫했을지도 모른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 개혁 운동은 범죄소설 열풍의 계기이자 성과였다.

②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를 질병으로, 형벌을 치료로 이해한 당대 범죄 담론을 강화했다.

③ 『캐서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문학작품이 항상 작가의 의도대로 읽히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④ 기득권층은 뉴게이트 소설의 대중적 전파력 확대가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 여겼다.

⑤ 『폴 클리퍼드』의 경우와 달리 『올리버 트위스트』는 범행 착수의 기로에 선 개인의 선택과 의지력을 강조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죄에 비해 과한 형을 구형하거나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② ㉡은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계급적 위치와 역할에 순응해야 하는 운명을 가리킨다.

③ ㉢은 범죄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범법과 준법의 경계를 허물려는 감수성을 가리킨다.

④ ㉣은 대중의 기대에 따라 범죄자를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그려내는 작가를 가리킨다.

⑤ ㉤은 범죄자에 대한 독자의 감정이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구현되는 정의를 가리킨다.

3. 윗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디킨스는 법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범죄의 해악에 대한 훈계를 한 작품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② 불워-리턴과 디킨스 모두 뉴게이트 소설의 작법에 따라 범죄자에게 자기 정당화의 기회를 많이 주었을 것이다.

③ 에인즈워스와 새커리 모두 범죄소설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나 참회를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④ 불워-리턴은 개인의 잠재된 범죄 성향을 찾기 위해, 그리고 에인즈워스는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범죄자의 유년기를 다루었을 것이다.

⑤ 불워-리턴은 새커리와 달리 범죄자와 독자 대중의 심정적 거리를 좁히고자 했을 것이다.

LEET 실전 전략 / 사전적 분석

등장인물들이 다수 제시되는 경우, 학자 이름 자체가 대응 지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제시문은 3번 문제를 사전에 먼저 살펴보았다면, 등장인물이 하나의 대응 지점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차원의 구획이 중요했던 제시문으로서 각각의 차원에 따라, 변수들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과제이겠습니다. 재독해를 돌아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1문단]

[관계 설정] **문학이**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을** 반영한다는 **명제는** 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문학적 서사는** 한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문학 속의 법은** 비윤리나

무질서와 대비되는 규범·규율의 상징, **또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 **같은 대상으로** 그려진다. **문학의** 감성적 **호소력은** 독자를 **일정한 행위 방향으로** 이끌어 법의 **제·개정을** 추동하기도 **한다**. **[사례]** 1830년대 **영국에서 유행한** 범죄소설은 **이러한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준다**. **범죄자** 처형기록부인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인물과 소재를 **차용해 '뉴게이트 소설'이라** 불린 **이 시기** 범죄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관계의 양상]그것은** 동시에 **당대의** 지배적 범죄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선전·유포하여**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을 이끌어나갈 핵심 이항관계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문학과 법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학 개념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문학과 법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 관계가 설정될 때마다 각인시켜야 하겠습니다.

문학 속에서 법은 종종 '규범과 규율의 상징'으로, 또는 '열리길 기다리는 문'과 같은 이미지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유의 구체적인 의미를 실전에서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최소한 문학과 법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문학 작품에서 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본 뒤, 문학이 단순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추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1830년대 영국의 범죄소설, 특히 '뉴게이트 소설'을 제시합니다. 이 사례는 문학과 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추후 해당 사례 자체를 대응 지점화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학이 법 개혁을 촉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상호작용의 한 양상을 드러내는 예시인 것입니다.

[2문단]
[문단 간 관계 설정] **불워-리턴의** 『폴 클리퍼드』는 **뉴게이트 소설 열풍의** 서막을 **연 작품이다**. **그 서두에서** 작가는 **소설 집필의 동기가** 영국 형법의 **두 가지 근본적** 야만성, **즉** 수감자를 **교화하기보단** 타락하게 만드는 행형, **그리고** 단순 절도범마저 **공동체로** 복귀할 기회를 **박탈하는** ㉠피에 굶주린 **형법전**에 대한 **교정임을** 밝혔다. **범죄자가** 들끓는 **술집에서** 유년기를 보낸 **클리퍼드는** 소매치기 누명으로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거듭한다**. **법정에 선** 그는 **죄 없는 소년으로** 감옥에 갔던 **자신이** 법을 깨뜨릴 **준비가 된 남자로** 그곳을 **나왔다며**, "**당신들의** 법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더니** 이젠 **죽이려** 든다."라는 **항변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발한다**. **법은** 범죄자를 **만드는 계급과** 처벌하는 **계급만을 위해** 존재할 진대,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놓인** 빈민을 ㉡**자연의 제일법칙에** 입각한 **선택지만** 남은 **상**

황으로 내몬 다음 **그 선택지를** 집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지** 소설은 **질문한다**.

두 번째 문단부터는 구체적인 작품과 작가를 언급하며 당시 범죄소설의 특징과 사회적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3번 문제를 미리 확인했다면, '불워-리턴'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작가의 이름이 그 자체로 중요한 '대응 지점'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독해에 임해야 합니다.

결국 2문단은 1문단에서 제시된 '법과 문학의 관계', 특히 뉴게이트 소설을 통해 드러난 상호작용에 대한 후속 설명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문학이 법 개혁을 추동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앞선 주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불워-리턴의 『폴 클리퍼드』는 법 개혁의 수단으로서 제시된 사례입니다. 사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 당시 영국의 가혹한 형법과 행형 제도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교정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기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문단 간 관계를 계속 능동적으로 연결해 본다면, 이는 결국 앞서 언급된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한다는 뉴게이트 소설 특징의 구체적 예시일 뿐입니다. 앞선 Principle 교재에서 강조드렸듯이, 언어는 결국 했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문단에서 처벌과 형에 대한 이야기를 괜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 과연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학이 법 개혁을 촉구하는 수단"의 의미에서의 진술들을 반복입니다. 아직까지는 내용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새로운 차원의 진술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문단]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자를 **신비화하고**, '참회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 **또는** '추궁당하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역할을** 전도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불워-리턴의 후속작** 『유진 아람』엔 **주인공의 범행 사실을** 밝혀낸 자가 **도리어** 공동체의 **지탄을 받고** 주인공의 용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에인즈워스의** 『룩우드』 **또한** 영웅의 일대기처럼 **범죄 서사를** 구성하고 **노상강도의 삶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관계 설정]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 묘사나 **형법 개혁의 메시지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던** 지배계급은 **이런 전복적 설정에** 대해서는 ㉢교수대에 낭비된 감수성이라 **격렬히 비난했다**. **[결과] 소**

설이 연극으로 **만들어져** 중산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 수용층이 **넓어지자** 불온한 열광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하여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의 양상을 "전도"라는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다만, '불워-리턴'의 세부 설명의 연속이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을 통하여 살펴보면, 3문단에서는 범죄자를 미화하고 법질서를 전복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에 대한 지배계급의 반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소설들을 보면, 범죄자를 신비화하고 "참회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 "추궁당하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역할을 뒤바꾸었습니다.

결국 3문단이 하는 기능은 결국 다시 한번 뉴게이트 소설을 통한 문학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세부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잘 되지 않더라도, 2문단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문학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논의의 평면적 변수를 바탕으로 보건대, 관계가 "전복"되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법질서를 전복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지배계층"이라는 관계에서 반발을 샀다는 점, 해당 소설이 노동계급으로 수용이 "확장"되었다는 점 정도가 기억날 수 있겠습니다.

[4문단]
[새로운 차원의 구획] **작가는** ㉣ 문학적 공범자가 **되어선 안 되며** 무뢰한의 **타락상을** 정확히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한** 새커리는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한 여성 범죄자를 **발굴하여** 『캐서린』을 **집필했다**.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개인사를 **부여한 지점까지** 이 소설은 **뉴게이트 소설의** 통상적인 **문법을 따랐다**. **하지만** 범죄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고자 **인물의 유년기를** 조명했던 **앞선** 작가들과 **달리[이전 문단 차원]**, **새커리는** 범죄성이 **개인의 병증이나** 타고난 악함에 **의한 것임을 밝혀** 독자의 공감을 **차단하려** 했다. **주인공의** 처형 장면은 **기사 인용 형태로** 건조하게 **기술되었다**. **처벌은** 악인의 참회와 **독자의 눈물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은 채** 가해짐으로써 ㉤**봉쇄된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독자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읽히기 마련이다**. **수전노로** 악명 높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고자 **살인을 조력한** 주인공의 욕망은 **독자에게** 뜻밖의 호소력이 **있었다**. **[결과]** **범죄에 대한** 구토를 유발하고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킬 약물을 **투입하겠다는** 작가의 기획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구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파악하셨어야 합니다.

'새커리'라는 작가의 사례가 새롭게 제시되나, 해당 사례 역시 결과적으로 뉴게이트 소설의 하위 차원의 설명입니다. 즉, 뉴게이트 소설에 대한 반작용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설명들이 제시됩니다.

앞서 제시되었던 작가들과는 다르게 새커리는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보고 범죄자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차단하려는 차원입니다.

뉴게이트 소설	
그 이전의 작가들	**새커리**
범죄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보는 차원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병증. 타고난 악함으로 보는 차원

그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기억이 잘 나지는 않겠지만, 독자에게는 예상치 않은 호소력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통해 작가의 기획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과 정도는 각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문단]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역시** 범죄소설의 **자장 안에서** 읽힌다.**[관계 설정]** **범죄자의 삶을** 세밀히 묘사하는 **작법은** 여기서도 **사용되었으며**, 익살스럽고 **입체적인 악역들은** 오락적 요소를 **배가했다**. **악인 대신** 어린 올리버가 **주인공으로** 설정됐으며, **그 주변 인물인** 소매치기들은 **자기 삶을** '로맨스와 열정이 가득한 **유쾌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 그 삶이** 교수대에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반면** 올리버는 **구빈원에서** 단지 죽을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혔음에도** 탁월한 통제력으로 **범죄 유혹을** 물리쳤고 **마침내** 사회로부터 **보상받는다**. **뉴게이트 소설의** 시대가 **저문 후에도** 이 소설이 **꾸준히 읽힌 데엔** 법의 부정의를 **고발하되** 해학과 권선징악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어** 법질서 자체를 **교란하지는 않았**던 작가적 선택이 **한몫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언급하며, 뉴게이트의 사례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제시됩니다. 앞서 작가들과의 공통점이 제시되며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소설도 범죄자의 삶을 세밀히 묘사하지만, 악인 대신 어린 올리버를 주인공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마지막 문단이 전형적으로 갖는 구조 중 하나로서 개념에 대한 평가가 제시됩니다. 해당 소설 장르가 법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도 해학과 권선징악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어 대중에게 꾸준히 읽혔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단에서 말했던 상위 차원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 일치 대응형 문제로서, 재독해를 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답은 형식적으로 명확했습니다. 결국 차원의 구획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형법 개혁 운동은** 범죄소설 열풍의 **계기이자** / 성과였다.

"형법 개혁 운동"을 대응 지점으로 재독해를 하러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때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형법 개혁 운동과 범죄소설 간의 관계 설정 여부 및 관계의 양상을 살피러 간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1문단]
[관계 설정] **문학이**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을** 반영한다는 **명제는** 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문학적 서사는** 한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문학 속의 법은** 비윤리나 **무질서와 대비되는** 규범·규율의 상징, **또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 **같은 대상으로** 그려진다. **문학의** 감성적 **호소력은** 독자를 **일정한 행위 방향으로** 이끌어 법의 **제·개정을** 추동하기도 **한다**. **[사례]** 1830년대 **영국에서 유행한** 범죄소설은 **이러한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준다**. **범죄자** 처형기록부인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인물과 소재를 **차용해 '뉴게이트 소설'이라** 불린 **이 시기** 범죄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1번 선지 대응 지점]**. **[관계의 양상]** **그것은** 동시에 **당대의** 지배적 범죄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선전·유포하여**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1, 2번 선지 대응 지점]**.

1문단에서,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계기)뿐만 아니라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성과)라고 하여 두 가지 관계가 모두 설정되었습니다. 재독해를 하러 돌아가 보니, 대응 지점이 있고 관계 양상도 맞으므로 맞는 선지였습니다. 1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②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를 **질병으로**, 형벌을 **치료로 이해한** 당대 범죄 담론을 **강화했다**.

1번 선지에서 썼던 재독해의 시간이 그대로 쓰였습니다. 특히, 2번 선지는 전형적인 "차원의 구획" 문제로, 실전에서 여러분에게 난이도가 쉬운 대상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 재독해를 하긴 했으나, 2번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다시 읽지 않더라도 약 80% 정도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결과 굳이 3~5번 선지를 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전체적으로 시간 절약이 가능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 제시문이 왜 쓰였는지를 중심으로, 문학과 법의 관계를 보다 상위 차원에서 설정해 본 바 있습니다.

[1문단]
[관계 설정] **문학이**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을** 반영한다는 **명제는** 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문학적 서사는** 한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문학 속의 법은** 비윤리나 **무질서와 대비되는** 규범·규율의 상징, **또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 **같은 대상으로** 그려진다. **문학의** 감성적 **호소력은** 독자를 **일정한 행위 방향으로** 이끌어 법의 **제·개정을** 추동하기도 **한다**. **[사례]** 1830년대 **영국에서 유행한** 범죄소설은 **이러한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준다**. **범죄자** 처형기록부인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인물과 소재를 **차용해 '뉴게이트 소설'이라** 불린 **이 시기** 범죄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 **[관계의 양상]** **그것은** 동시에 **당대의** 지배적 범죄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선전·유포하여**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2번 선지 대응 지점].

결국, 이 제시문에서 드러나는 문학과 법의 관계 양상은 문학이 기존 법 제도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대의 지배적 범죄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선전·유포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에서처럼 당대의 범죄 담론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대항하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선지는 형식적으로 명백히 틀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통해 나머지 선지들을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돼야 했었습니다. 2번은 틀렸습니다.

③ **『캐서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 문학작품이 **항상** 작가의 의도대로 **읽히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캐서린"을 대응 지점으로 제시문 4문단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재독해를 요구하는 세부 내용으로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4문단]
[새로운 차원의 구획] **작가는** ㉣ 문학적 공범자가 **되어선 안 되며** 무뢰한의 **타락상을** 정확히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한** 새커리는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한 여성 범죄자를 **발굴하여** 『캐서린』을 **집필했다**.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개인사를 **부여한 지점까지** 이 소설은 **뉴게이트 소설의** 통상적인 **문법을 따랐다**. **하지만** 범죄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고자

인물의 유년기를 조명했던 **앞선** 작가들과 **달리**[이전 문단 차원], **새커리는** 범죄성이 **개인의 병증이나** 타고난 악함에 **의한 것임을 밝혀** 독자의 공감을 **차단하려** 했다. **주인공의** 처형 장면은 **기사 인용 형태로** 건조하게 **기술되었다**. **처벌은** 악인의 참회와 **독자의 눈물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은 채** 가해짐으로써 ㉤**봉쇄된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독자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읽히기 마련이다**[3번 선지 대응 지점]. **수전노로** 악명 높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고자 **살인을 조력한** 주인공의 욕망은 **독자에게** 뜻밖의 호소력이 **있었다**. [결과] **범죄에 대한** 구토를 유발하고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킬 약물을 **투입하겠다는** 작가의 기획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3번 선지 대응 지점].

"하지만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독자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읽히기 마련이다"라고 하여, 논의의 평면적 변수로서 "새롭게" 라는 의미는 "작가의 의도" 차원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 차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와 같이 항상 "작가의" 의도대로 읽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④ **기득권층은** 뉴게이트 소설의 **대중적 전파력 확대가**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 여겼다.

4번 역시 "기득권층"과의 관계 형성 그 자체를 물어본 선지로서 쉽게 대응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독해 과정에서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냐가 정보처리과정, 즉 문제 풀이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3문단]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자를 **신비화하고**, '참회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 **또는** '추궁당하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역할을** 전도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불워-리턴의 후속작** 『유진 아람』엔 **주인공의 범행 사실을** 밝혀낸 자가 **도리어** 공동체의 **지탄을 받고** 주인공의 용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에인즈워스의** 『룩우드』 **또한** 영웅의 일대기처럼 **범죄 서사를** 구성하고 **노상강도의 삶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관계 설정]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 묘사나 **형법 개혁의 메시지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던** 지배계급은 **이런 전복적 설정에** 대해서는 ㉢교수대에 낭비된 감수성이라 **격렬히 비난했다**. [결과] **소설이** 연극으로 **만들어져** 중산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 수용층이 **넓어지자** 불온한 열광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었다**[4번 선지 대응 지점].

3문단에서, 지배계급이 전복적 설정에 대하여 "소설이 연극으로 만들어져 중산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 수용층이 넓어지자 불온한 열광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었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인 대응 지점